

기독교대학생 자존감향상을 위한 긍정적 영화치료  
알렉스 켄드릭 감독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2010)

고선옥(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 상담학전공 박사과정)

I. 서론

기독교대학생은 신앙을 갖춘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온전하게 활동하기 위한 전문적 배움의 생활을 병행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기독교라는 신앙체계와 기독교대학교라는 지식체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로써 기독교 지성으로써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롬1:13. 11:25, 고후1:8)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선택의 삶, 즉 옳은 판결을 위한 근본적인 도구가 되는 이성과 이해를 요구하는 삶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지성을 열고 계구성함으로써만이 선과 악, 의와 불의, 정의와 부정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옳다.<sup>1)</sup>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엡 4:1). 기독교대학생들의 부름은 부지런히 학문을 연마하고 인격을 도야하여 장차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대학생들은 건강한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기독교대학생의 시기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시기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자신감 있게 성공적으로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독교대학생으로써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분 안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지음 받았음과 온전히 사랑받음을 바로 알고 상황과 변화에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 또한 동반해야 한다.

기독교지성인으로서 대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자신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누구나 상황이 좋을 때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자아긍정감은 고조되기 마련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영역에 들어갔을 때 역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존감(自尊感, self-esteem)이 향상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한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혹은 지금까지 꿈꾸어 왔던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 따른 자기의 불균형은 어떤 기독교대학생에게는 낮은 자존감을 형성시키며, 삶의 탁월성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마 5:13) 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발현하려는 의지조차 높지 못한 경우도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기 쉽다. 이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낮게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두려워서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려 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

1) 이상규(2015). 『기독교대학과 교육』, 고신대학교출판부. 50

활성화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핵심 신념에 일치하는 생각은 즉각적으로 처리하지만,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 감정과 느낌들을 무시하거나 왜곡시킨다. 그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삶에 자신감이 없으며 모든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두려고 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역기능적으로 그의 내면에 남아있게 되어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들 즉, 육체적인 병이나 정신질환 등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자존감(self-esteem)은 자기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믿는 신념이다. 즉,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 자존감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고,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개인의 심리적 행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자존감은 개인 정신건강의 기반이 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밑바탕이 된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인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같다. 2)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자존감’에 차이가 있다. 긍정적 자존감은 전신 건강 및 원만한 성격과 맞물려 있다. 청소년기 자존감의 형성은 자신의 성격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며 긍정적인 자아상은 전 생애를 통해 성공과 행복의 열쇠가 된다. 특히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것은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를 거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영화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영화 그 자체가 대학생들에게 삶과 문화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까닭이다. 최근 개봉한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The Avengers: Age of Ultron)는 상상을 넘어 허황되다 싶지만 10,059,327명(2015.05.18 현재 집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13위의 흥행순위에 올랐다.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놀라운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나 한국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나오고 슈퍼영웅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구성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큰 기대감이 흥행열풍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한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대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실현시키는데 긍정적인 모델 역할을 한다. 영화 속에서 만나는 인물을 통해 자신을 닮은 혹은 닮고 싶은 모델링 형성이 이루어지며, 이것은 주인공의 성공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면서 미래의 긍정적 삶에 대한 꿈을 꾸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오늘날 영화가 대중들을 끄는 강한 흡인력을 작동시키고 있으며, 어떤 존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대의 강력한 매체<sup>3)</sup>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화가 가지는 재미와 상상력의 구현, 빠르고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전달력 등과 더불어 문제의 행동과 태도변화를 창조하는 치료적인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의 치료적 가치는 대학생들의 낮은 자존감을 긍정적으로 자존감향상에 효과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본 논문은 사회변화와 가족형태의 변화 속에 처해있는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영화를 활용한 집단 상담을 통해 자존감향상 프로그램 경험으로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고착된 부정적 내면세계를 극복해 나가며 긍정적 자존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상담 방법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화제가 된 기독교영화 <믿음의 승부 Facing The Giants> (2010)를

2) 김은실, 손현동(2015)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학지사. 4

3) 이혜경(2002). 청소년 인성교육에 있어 영화상담 적용방법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활용하였다.<sup>4)</sup> <믿음의 승부>는 미국 조지아주 알바니에 있는 셔우드 침례교회(Sherwood Baptist Church)의 교역자인 알렉스 켄드릭 목사가 만든 영화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500명의 교인들이 헌신하여 제작한 영화다. 영화를 완성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이 전무한 크리스천들이 제작부터 개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힘을 모았으니 영화 제작 자체가 그들에겐 진정한 '믿음의 승부'였던 것이다. 영화의 내용과 제작과정에서 드러난 긍정적 인물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독교 신앙 방식 등은 이 영화를 관람하는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4) 영화의 캐릭터와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6년째 계속되는 저조한 성적을 보이던 샬로트 기독학교의 미식 축구팀 이글스의 감독 테일러는 팀 해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팀은 시합에 승리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해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잠깐의 행복에 도취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승리 곧 주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믿음의 승부>는 2010년 5월 47.17%로 1위로 나타났다. 교회가 부담할 수 있는 초저예산으로 만들어 일반 개봉된 것만 해도 이례적인 일인데 전 세계 56개국에서 상영돼 2000만명이 관람했다. 제작비 대비 3000배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2006년 <믿음의 승부>(Facing Giants)를 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500명 안팎으로 출석하던 성도수는 2012년 현재 한 주간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수가 2천 여명으로 늘어난 점은 흥미롭다.